

조선

Keppel 실적 약세 지속

2013. 4. 23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Keppel,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57% 감소

세계 최대 Oil rig builder인 Keppel이 지난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27.6억SGD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7억SGD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되었다. 영업이익률은 13.4%를 달성했으며 Offshore 부문의 수익성은 14.1%를 달성했다.

Keppel의 올해 1분기 수주실적은 16.6억SGD를 달성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증가되었다. 수주잔고는 지난해말 128억SGD에서 131억SGD로 소폭 늘어났다.

Keppel의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은 100억SGD로 사상 최대수준을 달성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수익성은 최고 25% 수준에서 14%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격화이다.

1분기 Offshore 부문 수익성은 전 분기보다 1% 가량 개선되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주실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주경쟁은 매우 치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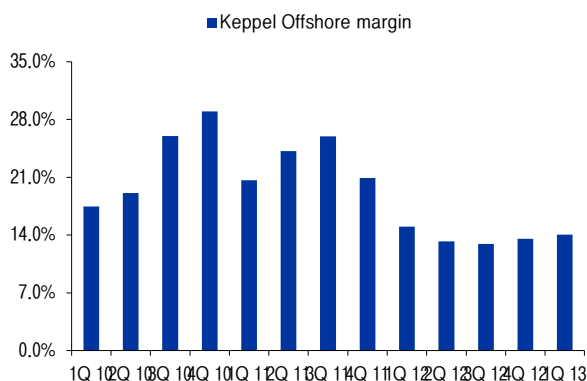
해양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전망

Keppel은 지난 2000년 이후 인도된 Jack up의 절반가량을 건조했다. 이는 Keppel이 Jack up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설계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Keppel의 Offshore부문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주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반적인 해양플랜트 시장의 분위기를 다소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의 Shale oil 생산량이 지난해 이후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원유 소비량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유가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시추영역 전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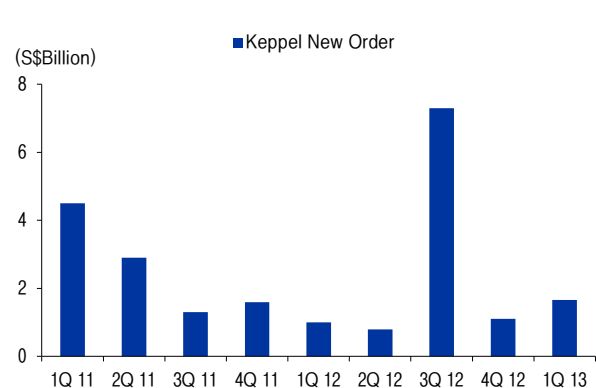
결국 해양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림1] Keppel 분기별 Offshore 부문 수익성 추이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Keppel 분기별 수주실적 추이



자료: Keppel,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